

작업인 것이다.

역사는 시간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며 歷史理解에 있어서 어떠한 구분은 필요하다. 만일 시간은 간단없이 흐르기 때문에 区分될 수 없으며 바로 그점에 진정한 역사과정이 발견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무수히 많은 사건·무수한 인물·방대한 양의 사실들은 다만 순서상의 배열이나 年代記의 나열에 지나지 않으며 서술상의 구성도 없는 혼돈과 무질서속에 잠겨버리고 말 것이다.

敎會史연구에 있어서 시대구분의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라면서 試論을 끝맺는다. ♣

성령세례의 성경적 의미와

중단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연구

박삼우 (Th.M)

◆ 목 차 ◆

| | |
|---------------------------------------|-------|
| I. 서 론 | <생략> |
| II. 오순절 신학의 성령 세례 | 30 |
| 1. 오순절 신학의 독특한 교리 | 30 |
| 2. 성령 세례에 관한 교리 | 32 |
| 1) 성령 세례의 정의 | 32 |
| 2) 교리의 근거 | 33 |
| III. 오순절주의의 주장에 대한 평가 | 37 |
| 1. 오순절 사건의 의미 | 37 |
| 1) 기독론적 조명 | 38 |
| 2) 교회론적 조명 | 44 |
| 3) 신자의 경험론적 조명 | 45 |
| 2. 다른 근거에 대한 바른 이해 | 46 |
| 1) 행 2:37-39 | 46 |
| 2) 행 8:14-17; 10:44-48; 19:1-17 | <생략> |
| IV. 성령 세례의 바른 의미 | 47 |
| 1. 고전 12:13의 성령 세례 | 47 |
| 1)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누구냐? | 48 |
| 2) 언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 48 |
| 2. 성령 세례의 두가지 양상 | 49 |
| 3.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 51 |
| V. 성령 은사의 성격 | <생략> |
| VI. 중단된 은사 | < " > |
| VII. 결 론 | < " > |

◆ 부민교회 담임목사, 제34회 졸업.

II. 오순절 신학의 성령 세례

1. 오순절 신학의 독특한 교리

오순 절 운동에 있어 신학의 중심은 성령론이요 그 성령론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다. 오순절 운동이라고 할 때 오순절이라는 말 그 자체가 바로 이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실은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인 조직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 Ernst Williams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오순절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¹⁾ “오순절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사건들 혹은 그 날에 일어났던 일들과 유사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 오순절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오순절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에게 일어났던 경험을 자신에게 동일화(identify)시키는 것이다. 즉 그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던 자들과 꼭 같은 방법으로 성령에 충만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도행전 2:4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한 귀절의 내용을 그 핵심으로 한다. 즉 그들에 의하면 오순절은(오순절주의²⁾에 의하면 성령의 교리는) 본질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불리워진 극적인 성령의 체험이 그 중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오순절주의자란 바로 이 경험을 경험한 자들을 의미한다.³⁾ 그들의 성령론은 실제로 성령에 대한 모든 다른 교리를 성령의 세례에 대한 교리만큼 강조하지 않는다.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묘사된 성령을 받

(註) 1) Ernst Williams, "Your Questions" Pentecostal Evangel, 49(Jan, 15.1961) p.11

2) 은사운동에는 엄격히 오순절주의와 신오순절주의가 구분되나 본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은사 운동을 지칭하여 ‘오순절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이 경험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일시 한 것이다.

4) Frederick Dale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Grand Rapids : Eerdmans, 1977), p.57.

는 일인 것이다. 다른 교리 예를 들면 성화, 복음전파, 병고침 혹은 재림 등 오순절에서 순복음이라고 부르는 모든 다른 요소들도 오순절 주의에 있어서는 행 2:4에 기록된 성령 세례의 경험 만큼은 일치되고 강력한 강조를 받는 주제가 되지 못한다. 1955년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오순절 세계대회(Pentecostal World Conference)에서 Donald Gee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⁵⁾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옛세자의 중심은 예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도 이와 꼭 같이 말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이러한 선언은 기독교인들의 대회는 만들지만 오순절파를 따로 구분된 대회를 갖도록 하는 명제는 되지 못한다. 이 대회는 세계 오순절 대회이다. 오순절 운동을 하나의 구분되는 운동으로 만드는 결정적이고 독특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 밀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첫째의 증거로 삼는 성령 세례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오순절 운동은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이룬다.”

사실 성령의 세례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교리를 제외한 성령의 다른 일반적 교리, 즉 성령의 사역과 인격에 대한 오순절주의의 이해는 별다른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 나아가 오순절주의의 구원론과 일반적인 신학도 대부분 보수 복음주의와 별다른 차이를 갖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Pentecostal Southern California(Bible) College의 Harold A. Fischer 교수는 그의 성령론 강의에서 오순절 운동은 특별한 한 가지를 제외하고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함에 있어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는 오순절주의가 신학적으로 구분되는 단 하나의 영역은 성령론이며 성령론 중에서도 단 하나의 독특한 현상으로서 오순절파는 회심의 뒤를 이어(때로는 동시에) 성경이 밀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註) 5) Pentecost, № 34 (Dec. 1955), p.10 Cf. Bloch-Hoell, Pentecostal Movement : Its Origin, Development, and Distinctive Character(Oslo : Universitets forlaget, 1964) p.175.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능력의 부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점이라고 말한다.⁶⁾

결국 오순절주의에 있어 가장 주된 주제는 성령의 경험이요 그것은 성령 세례와 거기에 따른 성령의 은사의 경험이다. 이 논제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주변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논쟁의 핵심이 되지 못한다.⁷⁾ 그래서 Fredrick Dale Bruner는 루터파가 그리스도 중심, 칼빈주의가 하나님 중심, 성공회가 교회 중심(ecclesio centric), 재세례파가 Kardio Centric, 감리교회가 성도 중심(hagio centric)으로 신교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었다면 오순절주의는 성령 세례 중심(pneumobaptiso centric)이라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⁸⁾

2. 성령 세례에 관한 교리

1) 성령 세례의 정의

오순절주의의 견해에 의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Baptized in the Holy Spirit)는 말은 성경에 다른 여러가지 표현으로 나타난다.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행 2:4),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행 2:38),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엡 1:13),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후 1:21) 등이 그들에 의하면 어떤 다른 성령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의미, 즉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성령 세례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⁹⁾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묘사함에 있어 오순절주의는 Baptism of (혹은 by) Spirit이라는 표현보다는 Baptism in (혹은 with)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들에 의하면 Baptism of (혹은 by) Spirit은 모든

(註) 6) Harold A. Fischer, "Progress of the Various Modern Pentecostal Movement", cf. Fredrik Dale Bruner, op.cit., p.59.

7) 이 점이 본 논문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주제로 삼은 이유이다.

8) Fredrick Dale Bruner, op.cit., p.59.

9) Ralph M. Riggs, The Spirit Himself (Spring field, Mo : Gospel Publishing House, 1949) p.63 Riggs는 이러한 표현 외에 ‘성령이 내려온다’(행 10:44)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고후 1:22)을 추가하여 신약성경에 구원에 뛰어난 신자들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경험을 묘사하여 사용된 일곱가지 표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기독교인 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표현한다. 즉 이것은 성령이 모든 기독교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주는 회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Baptism in (혹은 with) Sprit는 Baptism of (혹은 by) Spirit을 체험한, 즉 중생한 신자가 받게되는 제2의 경험으로 이것이 곧 소위 ‘성령 세례’이다.¹⁰⁾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성령에 의하여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점을 성령이 모든 기독교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주었고 (Baptism by or of Spirit), 그리스도는 아직 모든 기독교인을 성령 안으로 세례를 주지는 (Baptism in or with spirit) 않았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성령 세례에 대해 나타나는 오순절주의의 이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 사건은 중생과 구분되며 중생에 뛰어어 (때로는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증거가 된다는 점이고, 셋째는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진지하게 구해야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요소 즉 성령 세례가 중생과 구분된다는 주장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기로 한다.

2) 교리의 근거

성령 세례가 중생에 뛰어난다는 오순절주의의 교리의 근거는 사도행전이다. 실제로 오순절주의는 이 주장과 관련된 그들의 자료가 거의 전적으로 사도행전에 한정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구약과

(註) 10) 그들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고전 12:13 떠문이다. 신약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Baptis̄m̄o eν πνευματi*란 표현이 일곱번 나 타나는데 그중 여섯은 오순절 사건에 관계되어 있으며 중생 이후의 경험으로 나타나 있다. 다른 하나가 고전 12:13인데 여기에는 성령 세례가 중생과 동일시 되어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헬라어 εν은 in과 by로 번역될 수 있으므로 고전 12:13의 εν은 by로 나머지는 in으로 번역하여 성령세례를 둘로 나눈 것이다. Robert H. Culpepper, Evaluating the Charismatic Movement (Valley Forge : Judson Press, 1977) p.56.

복음서는 이 문제에 관해 예언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서신서에서도 그들은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 어떤 부분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말한다. “우리는 초대 교회 신자들에 의해 경험된 성령 세례에 관한 상세한 묘사는 사도행전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¹¹⁾ 그리고 아울러 그들 공공연하게 ‘만약 제 2의 경험으로 성령 세례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한다.¹²⁾ 그러면 그들이 성령 세례를 중생에 뛰어나타나는 제 2의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오순절 사건 (행 2:1-4)

오순절주의에서 성령 세례가 제 2의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제자들이 이미 오순절 전에 중생했지만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대표적 오순절주의자인 William G. MacDonal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³⁾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이미 이전에 중생한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 17:14),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으며(눅 10:20), 그들은 영적으로 깨끗했고(요 15:3), 그들은 포도나무로서의 예수에 연합된 가지였다(요 15:43).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註) 11) Carl, Brumback, What Meaneth This? A Pentecostal Answer to a Pentecostal Question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47) p.185.

12) Fredrick Dale Bruner, op.cit., p.63.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들도 본 논문의 서론에 제시된 전제, 즉 기독교인의 경험은 아무리 그것이 많은 사람에 의해 경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기독교인의 경험의 표본이나 규범이 될 수 없으며 성경만이 모든 기독교인의 경험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이다.

13) William G. Mac Donald, Systematic theology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Co., 1964) Vol I. p.42)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 중생하였지만 예수께서 이미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는 한번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 세례를 받게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결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세례는 중생과 구분되며 중생에 뛰어나타나는 제 2의 경험이라는 주장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 중생하였지만 그후 오순절에 비로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오순절주의의 주장에는 잘못이 없다. 과거에 보수신학 특히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도 성령 세례와 중생의 동일성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제자들이 오순절에 비로소 중생했다고 주장하거나, 이 점을 논의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⁴⁾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이 이미 중생했다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오순절에 비로소 제자들이 회심했다는 주장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제자들이 체험한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느냐 그리하여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이미 중생한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인 것이다.

② 행 2:38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려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준 권면은 오순절주의에서 성령 세례가 중생에 뛰어나타나는 제 2의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초이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세례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가 모든 먼 테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에

(註) 14) 오순절 때에 제자들이 중생 회심했다는 대표적인 주장은 Merrill F. Unger, The Baptism & Gifts of The Holy Spirit (Chicago: Moody Press, 1974) pp.57-58 : Campbell Morgan, The Spirit of God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0) p.132 : Donald Bridge, Spiritual Gifts and Grace (London: I. V. Press, 1973) p.115 : John F. Walvoord, The Holy Spirit (Ohio: Dackah Fidlay, 1965) p.139에 잘 나타나 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순절주의에 의하면 이 귀절에서는 신자의 경험의 3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회개하고, 둘째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셋째 그 다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Riggs는 회개할 때 성경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그들이 물세례를 받으므로 그리스도에 의해 공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 다음 성경 세례를 받는다고 이 귀절을 주석한다.¹⁵⁾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귀절을 근거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약속의 용밖에 소유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3) 행 8:14-17(사마리아 사건), 행 10:44-48(고넬료 집의 사건), 행 19:1-7(에베소의 사건)

이 세 사건은 오순절주의의 주장에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¹⁶⁾ 사마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은 받지 못했었다. 사도행전 8:14-17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베드로와 요한……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저들이 이미 물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중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이는 중생한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오순절 경험을 해야한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고넬료 집의 사건은 오순절주의가 중생과 성령 세례가 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야만 하는 사건이다.¹⁷⁾ 중요한 것은 이

(註) 15) Ralp M. Riggs, op.cit., pp.55-56 : Riggs는 이 귀절에 세가지의 세례가 차례로 언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회심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 세례(Baptism by the Spirit)를 받는 일이고, 둘째 그리스도를 고백하므로 받게되는 물세례이며, 셋째 오순절 경험으로서의 성령 세례라는 것이다.

16) John F. MacArthur, Jr, The Charismatics (Grand Rapids : Zondervan, 1978) pp.94-102.

17) 이 점에 있어 그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가 이미 중생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했을 때 고넬로는 중생했고 나중 설교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예베소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분명히 신자였다.(2절)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를 믿기는 하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 일어나는 제2의 경험이며 이는 모든 기독교인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축복스러운 약속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¹⁸⁾

III. 오순절주의의 주장에 대한 평가

1. 오순절 사건의 의미

앞서 살펴본 대로 오순절주의에서 성령 세례를 기독교인의 제2의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오순절 사건이다. 이미 중생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세례는 중생한 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앞서 논한 대로 오순절 이전에 중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문제는 중생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실이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이 중생한 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의 경험이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오순절이 반복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사건이라면 오순절에 관계해서 사용된 성령 세례란 표현은 다른 시대의 기독교인의 경험에 관계해서 사용되어질 수 없는 오순절 사건만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며

(註) 18) Ralp M. Riggs는 The Spirit Himself 제7장에서 “The Baptism in The Haly Spirit Distinguished from Coversion”라는 제목을 걸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6가지 대표적 인물들이 있다고 하면서 사도들 사마리아 교인들, 바울,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오순절에 회개한 사람들을 들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의 경험에 관계해서 사용하는 성령 세례의 의미는 오순절과 관계없는 다른 표현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은 과연 어떤 성질의 것인가?

오순절 사건이 구속사건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기독론적, 교회론적, 그리고 신자개인의 경험론적 관점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¹⁾

1) 기독론적 조명

오순절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베푼 주체이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완성이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오순절 성령 세례의 약속과 성취라는 양각도에서 조명할 때 잘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약속의 관점은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 성취의 관점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증거를 통해 살펴보겠다.

① 약속: 세례요한의 증거

복음서들이 세례요한의 사역과 선포의 예비적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방법 - 특별히 요한 자신이 진술하고 있는 요한 자신과 오실 메시야 사이의 대조 - 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24-39에 나타나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증거는 예수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29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34절) 등으로 지칭하는데, 이러한 증거의 촛점과 절정이 자신은 물로써 세례를 주나(31, 33절),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34절) 있다.²⁾

(註) 1) 오순절 사건을 기독론적, 교회론적 그리고 신자개인의 경험론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 그 구속사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 대표적인 학자는 Westminster의 Richard B. Gaffin Jr. 교수이다. 오순절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 논문도 그의 연구를 많이 참조했음을 밝힌다; Richard B. Gaffin Jr. op.cit., pp.9-39.

2)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3:15-18; 마 3:11 f; 막 1-7 f에도 나타난다.

군중들에 의해 자신의 신분에 대해 특별히 그가 메시야인지 아닌지를 밝히라는 압력을 받을 때 요한은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대답을 했다. 그의 대답은 그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가르쳐 줌으로 자신이 메시야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수여하는 방법으로 비교된 것이다. 요한의 사역은 준비요 예비적인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회개에 대한 요한의 요구는 예비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물세례의 표 아래 있다.³⁾ 이와 대조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취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물세례가 아닌 실재적인 성령과 불의 세례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메시야의 세례의 불은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다.⁴⁾ 따라서 이 세례는 구원이거나 멸망이거나의 종말론적 심판을 포함한다.⁵⁾ 메시야의 성령과 불의 세례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세상을 깨끗케하는, 즉 꼭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위대한 행위의 한 부분이다.

이점, 즉 메시야의 성령과 불의 세례의 종말론적 의미는 오순절을 이해하는데 뿐만 아니라 누가가 요한의 기대와는 분명히 반대로 메시야의 세례가 즉시로 일어나지 않고 예수 자신이 요한의 세례에 복종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령을 받으시는 일에 근거한 한기간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한 사실을⁶⁾ 이해하는데도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마침내 실현된 성령과 불의 세례는 신자에게는 파괴보다는 축복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메시야 자신이 먼저 신자들의 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벗겨줄 수 있도록 그들의

(註) 3) 요한의 세례의 예비적인 성격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75) pp.317-318 ; George Eldon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1981) pp.39-40.

4) 불은 심판을 의미한다. George Eldon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p.37.

5) 뷔 3:16-17.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꼭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6) 뷔 7:18-22.

죄를 대신 진 자가 되어야 했으며 그들의 죄가 받은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만약 신자들이 성령을 축복으로 받아야 한다면 그는 그들 위에 있는 진노를 제거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성령을 받아야만 했다.

요한의 사역과 세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받으신 일, 그리고 오순절 사건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요 1:33에 잘 표현되어 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29절)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에게 물로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성령이 와서 머무는 그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고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그를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 성취

오순절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대로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요한의 증거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점을 베드로와 바울의 증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i) 베드로의 증거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이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침으로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악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으나 부활하셨다.” (행 2:23-31)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32절 이하에서 말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행 2:32-33)

이 베드로의 증거는 오순절과 그리스도의 사역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아버지의 약속으로서 그리고 옛 언약 속에서 기다리는 것의⁸⁾ 완전한 성취의 핵심으로서 성령의 강림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적

(註7) 행 2:14-39.

8) 구약에 나타나있는 성령을 주실 일에 대한 약속은 : 사 44:3-5; 사 32:15; 갤 37:14; 골 2:28-32. 요한은 바로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다.: George Eldon Ladd: op.cit., p.37.

인 사건들, 특히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오순절에 부어 주셨다는 말씀이 이것을 증명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의 높아지신 사역의 결과가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오순절은 독립된 하나님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연결된 사건으로 어느 하나가 없이는 다른 사건도 일어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와의 관계가 행 1:5에 분명하게 나타난다.⁹⁾ 예수께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요한이 예언한, 메시야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증거의 성취로 말씀하셨다. 요단강에서는 구속 사역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성령은 아버지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오순절에서는 구속 사역의 성취의 결과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¹⁰⁾

이렇게 볼 때 신약의 종말론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완전한 성취는 미래에 남아있는 독특한 구조는¹¹⁾ 뉴 3:16-17의 요한의 예언의 성취에도 적용된다.¹²⁾ 이 예언은 오순절에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시 실행할 마지막 심판의 불세례의 의미 또한 이 예언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ii) 바울의 증거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미래에 있을 신자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항하여 강력한 어조로 부활을 주장하며 증거한다. 그런데 이 바울의 주장에 있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부활의 연합이다. 부활의 경험

(註9) 행 1: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0) Richard B. Gaffin Jr. op.cit., p.17.

11) 신약의 종말론의 이러한 ‘already not yet’의 성격은 Anthony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 Eerdmans, 1979) pp.68-78에 잘 설명되어 있음.

12)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그 속에 심판의 불세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성령 강림의 법주 속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요 3:18)

의 이 확실성은 20절에 가장 날카롭게 표현되었다.¹³⁾ 그리스도의 부활이 위대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신 일을 모든 신자들을 위해 또한 하실 것을 의미한다.¹⁴⁾

계속되는 귀절(42-49절)은 부활의 몸의 성질에 관계되어 있다. 44절에서는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며, 45절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자들이 부활에 입게될 신령한 몸의 모형이요 첫 열매임을 밀한다.¹⁵⁾ 그런데 45절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부활의 표본이었다는 그러한 사실 이상의 것을 말한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Gaffin 교수는 이 진술(45절)을 이해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기초가 되어야함을 지적한다.¹⁶⁾ 첫째, 바울이 신약에서 사용한 “영”이라는 단어의 용법, 특별히 고전 2:10 이하(특히 13절)과 고후 3:3 이하(특히 6절), 그리고 다양한 이단어의 형용사적 용법¹⁷⁾에 비추어 볼 때 고전 15:44, 46의 *πνευματκον*과 45절의 *πνευμα*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관계가 있다. 둘째,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할 때 바울이 三位 하나님의 사역을 혼돈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사람으로서 무엇이 되었나를 이 귀절에서 말한다.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높아지심(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성령의 완전한 소유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들의 활동에 있어 동일하게 되었다는

(註) 13)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4) 첫 열매란 구약을 배경으로 한 용어로서, 출 23:19; 롬 23:10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첫 열매 혹은 첫 추수단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 이것은 ① 모든 남은 추수(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이었으며 ② 한편으론 남은 추수도 이 첫 열매처럼 기름지고 풍성하게 해주시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증의 바램이었다: Leon Morris,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 Eerdmans, 1980) p.213.

15) 침조, 고전 15:49; 롬 8:29

16) Richard B. Gaffin Jr. op.cit., p.18.

17) 롬 1:11; 고전 12:1; 갈 6:1; 엡 1:3; 롬 1:9.

것이다. 둘은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에서 첫 열매를 가진 생명을 주는 종말론적 사역에 있어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로 보인다.셋째, 이 귀절에서 생명을 주는 일은 우선적으로 재림시에 일어날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에 관계된 일이지만 동시에 그의 현재적 사역에도 관계된다.

이상과 같은 바울의 증거와, 앞서 언급한 베드로의 설교를 종합할 때 우리는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오순절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다.¹⁸⁾ 오순절의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은 요 14:16 장에 그가 보혜사로서 성령의 오심을 약속할 때 예수님 자신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에서 강조되었다. 특별히 14:12 이하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는 것이 그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있으며 동시에 성령의 오심이 자신의 오심¹⁹⁾과 함께 약속되어 있다. 나아가 19-23 절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은 부활 이후 잠깐 나타난 사건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약의 기독론과 성령론에 있어 지배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는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절대적인 협동과 일치이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어떤 부가물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넘어가는 어떤 독립적인 활동도 아니다.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지상 생을 조명해 줄 뿐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종말론적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명한다.

예를 들면 최후의 명령(Great Commission)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

(註) 18) Richard B. Gaffin, Jr., op.cit., p.19

19) 요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너라”는 약속은 재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John Calv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2, trans. T. H. L. PAKKER (Grand Rapids : Eerdmans, 1974) p.83)

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마 28:20)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의 신적인 성품, 즉 우주에 편재하시는 그의 임재로 이해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활동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자요, 영화롭게 되신 인자요, 성령을 통해 오셔서 교회 내에 임재하시는 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오순절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요한,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결론적으로 말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의 결과이며,²⁰⁾ 그리스도 사역의 절정이다. 나아가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에 오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수난, 죽음, 그리고 높아지심의 결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강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고의 성취이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오셨다. 따라서 만약 오순절 사건이 없더라면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룬 그리스도의 사역은 불완전하며 비완성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2) 교회론적 조명

오순절과 교회의 관계는 사실상 앞서 논의를 해왔었다. 오순절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논할 때 자연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거듭해서 교회를 언급해야만 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지 자신을 위한 사적인 것이 아니라 메시야로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론적 조명과 교회론적 조명은 언제나 밀접한 상호 보완의 성격을 지니며 필연적으로 그 내용이 얹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은 한 마디로 곧 교회의 설립이라는 점이다.²¹⁾ 그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엡 2:32)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고전 3:16)의 그리스도의 몸을 설립한다. 따라서 바로 이 몸의 일원이 된,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註) 20) 요 7:39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도 이점을 잘 증거해 준다.

21) George Eldon Ladd, op.cit., pp.342-348에서 교회의 설립으로서 오순절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음.

모든 사람은 성령의 오심에도 또한 함께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기독론적, 성령론적, 그리고 교회론적 고찰의 혼합적인 성격은 특히 교회의 경험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성령은 상호 교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미의 것이라는 점에서, 롬 8:8-10에 잘 설명되어 있다. 롬 8:8-10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상호 교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²²⁾ 우리는 여기서 앞서 설명한 고전 15:45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신자에게 성령의 체험과 그리스도의 체험은 분리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한다.²³⁾

3) 신자의 경험론적 조명

이상에서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을 교회의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요구해야 할 중생 이후에 경험하는 두번째 축복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오순절주의자들의 잘못은 이 오순절의 경험을 거기에 있는 자들의 *ordo salutis*로, 즉 구원 사역의 적용 교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오순절은 *historia salutis*, 즉 구속 사역의 성취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분명히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둘은 결코 혼돈되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대적 충분성과 완전성의 결과로서 앞서 언급했듯이 오순절 성령 세례는 구속사에 있어 신기원적 의미를 가지는 독특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중생한 이후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구속 사역의 적용 교리의 한 순서로서

(註) 22) 이 점은 William Hendriksen, Roman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0) pp.252-253에 잘 설명되어 있음.

23) Richard B. Gaffin, Jr. op.cit., p.21.

그들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라는 구속사의 하나의 신기원적 사건에 그들이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반복된 가능성이 전혀 없고 개개 신자의 경험의 하나의 표본으로 결코 취급될 수 없다. 오순절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과 함께 복합적인 단일 사건의 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건의 내용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사역의 약속의 성취로서 성령의 강림을 성령 세례라고 묘사한 것이다. 결국 오순절 사건과 관련된 성령 세례가 오늘날 신자의 개인적 경험의 차원에서 중생 이후 제 2의 경험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다른 근거에 대한 바른 이해

1) 사도행전 2:37-39

성령 세례가 중생에 뒤이어 일어나는 신자의 제 2의 경험이라는 오순절주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행 2:37-39 이었다. 그러면 이 성경 귀절은 과연 성령 세례를 중생에 뒤이어 일어나는 제 2의 경험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 청중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하고 반응했고 거기에 대해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²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다. 여기 먼저 언급된 것이 회개이다.

여기서의 회개는 뉘우치라는 의미의 후회 (Regret)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이미 청중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후회했다.²⁵⁾ 여기서의 회개는 세례를 받겠다는 결정 혹은 결심을 의미한다.²⁶⁾

즉 그것은 설교와 세례 속에서 인간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제공된 하나님의 제의와 사역에 대해 응답하여 교회에 가입하는 결정을 뜻하는 것이다.²⁷⁾

53 페이지에 계속

(註) 24) 한글개혁 성경의 ‘그리하면’은 바른 번역이 아니다. ‘Kai’는 ‘그리고’로 번역되어야 한다.

25) 행 2: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26) 회개의 사용된 동사 *μετανοησατε* 도 *aorist imperative*로서 동작의 반복이나 계속을 (present imperative) 의미하지 않고 단회적인 동작을 의미한다.

27) Fredrick Dale Bruner, op.cit., p.166.

IV. 성령 세례의 바른 의미

1. 고전 12:13의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βαπτίζω εν(ευ) πνευματι*”란 표현은 신약에 7번 나타난다.¹⁾ 이를 중 여섯은 오순절, 혹은 보다 정확하게 단회적인 사건으로 오순절에 관련된 것이고,²⁾ 하나는 고전12:13로서 오순절에 함께 있지 않았고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신기원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과 연관되지 않은 오늘날과 같은 신자들의 상황에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12:13에 나타난 성령 세례의 의미를 연구해 보기로 한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사역에 관한 바울의 관심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그것은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관계되는 성령의 은사들의 다양성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에 있어 근본적이며 기초가 되는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있다.³⁾ 한 몸으로서 연합성 그리고 그 자체의 다양성, 그리고 나아가 연합성과 다양성의 조화있는 균형이라는 원리 위에서 성령의 사역과 그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성령과 그의 많은 은사를⁴⁾ 이라는 성령의 활동이 보다 근본적인 사실 즉, 성령이 활동하시는 영역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하는데 근거되어 있다. 바울이 성령의 활동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령이 그의 다양한 사역을 나타내는 한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은 다양스럽게,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지체들을 가진 한 몸의 표현 혹은 기능이다.⁵⁾

바울의 관점은 세례에 있어 성령의 연합적인 활동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모든 기독교인이 필연적으로 한 성령을

(註) 1) Richard B. Gaffin, Jr., op.cit., p.25.

2) 마 3:11; 막 3:8; 놀 3:16; 요 1:33; 행 1:5; 11:16.

3) 이 점은 고전 12장 중에서도 특별히 12-27절이 잘 설명하고 있다.

4) 이 점은 고전 12장 중에서도 특별히 4-11절이 잘 설명하고 있다.

5) 고전 12:12 참조.

나누게 됨다는데 있다. 여기서 성령은 몸을 조성하는 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 안에 있음으로 해서 모두에게 부여되는 선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13절 하반절의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이 점은 롬 8:9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성령이 그 속에 거한다”는 진술과 고전 6:17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는 진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전 12:13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의 조명아래 살펴볼 때 성령의 세례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1)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누구냐?

바울의 답은 간단할 뿐 아니라 강조되어 있다. “우리가……다”이다. 그것은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전 구성원이다. 바울은 어떤 특정한 그룹, 교회 안의 어떤 분파를 말하지 않는다. 분명히 전체로서의 몸, 전 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13절 하반절에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므로 그것이 “다(all)”임을 반복한 것은 이 점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2) 언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열핏 본문을 살펴볼 때 13절은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진술 속에 있다. 성령의 세례의 경험은 각 기독교인이 한 몸에 연합될 때, 즉 그리스도에 연합될 때 일어난다. 즉 성령의 세례는 중생과 동시적인 사건이다.

이 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바울에게 있어 구속의 적용의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전포괄적인 실제, 즉 구속의 경험의 알파와 오메가는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경험이다.⁶⁾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이다.” 이 연합의 경험은 그것과 함

(註) 6) Herman Ridder 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79), pp.206-213.

7) Ibid., p.213.

께 죄의 용서(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새생명을 가져오며 죄의 죄책과 오염에서 구출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속의 유익들과 함께 이들을 계속해서 즐기는 축복을 가져온다. 13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경험(그의 몸과 연합되는 경험)이 그리스도 자신이 오순절에 교회에 세례를 주셨던 성령 강림을 경험적으로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그의 축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에 동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동참하는 것이다. 오순절은 우리가 앞서 본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한부분이며 한 같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그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몸인 교회와 연합될 때 경험된다.

2. 성령 세례의 두 가지 양상

이상의 논술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신약에서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상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오순절 사건을 묘사하는 성령 세례라는 표현과 고전 12:13의 성령 세례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오순절 사건은 앞서 논증한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고의 성취로서 구속사에 있어 하나의 신기원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개인의 경험에 있어 결코 반복될 수 없는 하나의 *ordo historia*였다. 그런데 신약은 이 사건을 묘사함에 있어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교회의 독특한 관련을 염두에 두고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연합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다. 즉 신약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두가지 양상을 묘사하고 있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양상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설립을 의미한다면 고전 12장의 성령 세례는 그 몸에의 연합을 의미한다. 오순절 성령 세례에 의해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내주하시게 되었고 고전 12장의 성령 세례에 의해 성령은 각 신자

개인에게 내주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둘이 결코 동일시 되거나 혼돈될 수 없는 양상이라는 점이다. 특별히 개인의 경험의 차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실 성령 세례에 관한 논의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가져왔던 것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⁸⁾

오순절주의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⁹⁾ 성령 세례에 관한 표현을 둘로 나누어 Baptism of (or by) Spirit는 모든 기독교인이 될 때, 즉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일어나는 역사를 가르키고 Baptism in (or with) Spirit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로서 중생한 이후 갖게되는 제2의 경험이라고 했다. 그들의 분류를 인정한다면 Baptism in (or with) Spirit는 오순절 사건의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에서의 반복(반복될 수 있다고 가정할 때)이라고 볼 수 있고, Baptism of (or by) Spirit는 고전 12:13에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분류에 대해 지적해야 할 것은 첫째 그들의 분류를 인정한다면 Baptism in (or with) Spirit, 즉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이 시대의 신자의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개개 신자의 경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Baptism of (or by) Spirit만 개인의 경험적 차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과, 둘째 성령 세례를 Baptism in (or with) Spirit와 Baptism of (or by) Spirit로 나눌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¹⁰⁾

(註) 8) 대부분의 보수주의적 전통한 신학자들이 이 둘을 구분치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곧 중생과 동일하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제자들이 오순절에야 중생했다는 억지주장을 떠거나: M. Unger, Walvoord, G. Campbell Morgan, Donald Bridge, Charles C. Ryrie, 오순절을 독특한 예외적인 사건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박형룡

9) 본논문 II장, 2.1.

10) 그들이 성령 세례에 있어 전치사 *εν*을 *in*과 *by*로 나눈 것은 K. J. V. 성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King James Version은 사도행전과 복음서에서는 전치사 *with*로 고전 12장에서는 *by*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전혀 원어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Anthony A. Hoekema, Tongues and Spint Baptism, (Grand Rapids: Baker, 1981) Part II. p.22.

결국 신약 성경은 두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성령 세례란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경험과 관계하여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 즉 고전 12:13의 성령 세례를 가리킬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3.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모든 기독교인이 성령 세례를 이미 경험했다는 진리를 각 신자의 성령의 사역의 경험에 있어서 개인적인 다양성이나 계속적인 성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심보다 더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어떤 능력에 대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¹¹⁾ 성령 세례를 받은(중생한) 신자에 대한 성령의 이러한 계속적인 사역을 신약은 성령 충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¹²⁾

모든 기독교인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이 항상 성령에 복종하고 성령과 동행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³⁾ 성령을 근심되게 할 수 있고(엡 4:30),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 (살전 5:19) 따라서 중생한 신자는 회심 이후 어떤 특수한 경험으로 성령이 다시 그에게 임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신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자신을 성령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이렇게 신자가 자신을 내주하는 성령에게 온전히 드릴 때 성취되는 성령의 사역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¹⁴⁾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이 신약에는 두 가지 다

(註) 11) Lewis Sperry Chafer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의 성격과 기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성령 충만의 경험도 이러한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체험된다고 했다.: Lewis Sperry Chafer, He that is Spiritual (Whittleton: Van Kampen press, 1918) p.3.

12) J. Oswald Sanders, The Holy Spirit and His Gifts (Grand Rapids: Zondervan, 1981) p.132.

13) Anthony A. Hoekema, op.cit., p.80.

14) John F. Walvoord, The Holy Spirit: 성령, 이동원 역, p.250.

른 양상으로 나타난다.¹⁵⁾

1) 때때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가 성취해야 할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한 능력을 부여받는 순간적인 경험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 충만함을 받는다는 동사의 시제는 언제나 ²⁰⁻
rist로 사용되었다.¹⁶⁾ 그 대표적인 경우가 행 4:8이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내용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특별히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행 4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는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돌아와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리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했다.(행 4:23-31). 여기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순간적인 경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경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자에게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었다는 점이다.¹⁷⁾

2) 성령 충만이 순간적인 경험이 아닌 차라리 계속적인 동작을 두고 표현된 것이 신약에 두 곳 있다. 첫째 경우가 행 13:52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쫓겨난 후 누가는 안디옥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 관해 말하기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imperfect로서 계속적으로 성령

(註) 15) 신약에는 때때로 ‘성령충만’이라는 표현이 동사의 형태가 아닌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묘사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예를들면 누가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는 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눅 4:1) 또한 행 6장에 서 일곱을 택할 때 그 기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행 6:3)이라고 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다.(행 6:5; 7:55) 그리고 행 11:24에는 바나비에 대해 “그는 착한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다. 이러한 귀절에 있어 성령충만은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어떤 개인의 영적인 성격을 묘사한다. Hoekema, op.cit., p.83.

16) 헬리어의 aorist tense는 하나님의 단회적이며 일시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17) 필자는 이점에서 오순절주의가 말하는 성령 세례가 대부분이 경험을 오해했음을 지적한다.

에 충만했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귀절은 성령 충만이 그것을 받으라는 명령형으로 기록된 단 하나의 귀절인 엘 5:18이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동사의 시제는 현재이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함을 의미한다.¹⁸⁾

이상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 결론지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야말로 중생한 신자가 기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며, 오순절주의는 이 경험을 많은 경우 성령 세례와 혼돈하고 있다는 점과 신자는 때때로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 특별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그것이 하나님의 예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명령형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

☞ 46페이지에서 계속

그리고 이 세례가 이 귀절에 의하면 죄의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물론 실제에 있어 순서는 죄의 용서가 세례보다 앞서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의 순서는 세례가 죄의 용서보다 앞서 나타날 수 있다.²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오순절 주의가 주장하는 죄사함을 얻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사이의 시간적인 순서의 개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죄는 사실상 어떤 노력에 의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용서받는 일 즉 칭의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내재를 뜻한다. 따라서 죄의 용서와 성령받는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 결국 이 귀절은 신자가 개인의 경험적 차원에서 죄사함 받은 다음 성령을 제2의 경험으로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註) 18) 이 귀절에 대해 R. W. Stott는 The Baptism and Fulness of the Holy Spirit (Chicago : Inter varsity, 1964) pp.30-31에서 세가지 사실을 지적하였다. 첫째, 동사가 복수형이므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신자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을 향한 명령이며, 둘째 동사가 현재시제로서 계속적으로 이 사실이 일어나야함을 가르치고, 셋째 동사가 수동태로서 성령이 당신을 충만하게 하라. 즉, 인격이신 성령에게 자신을 복종시켜 그가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다는 것이다.